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3호 현대불교
2008년 1월 23일(음력 12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19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여유있게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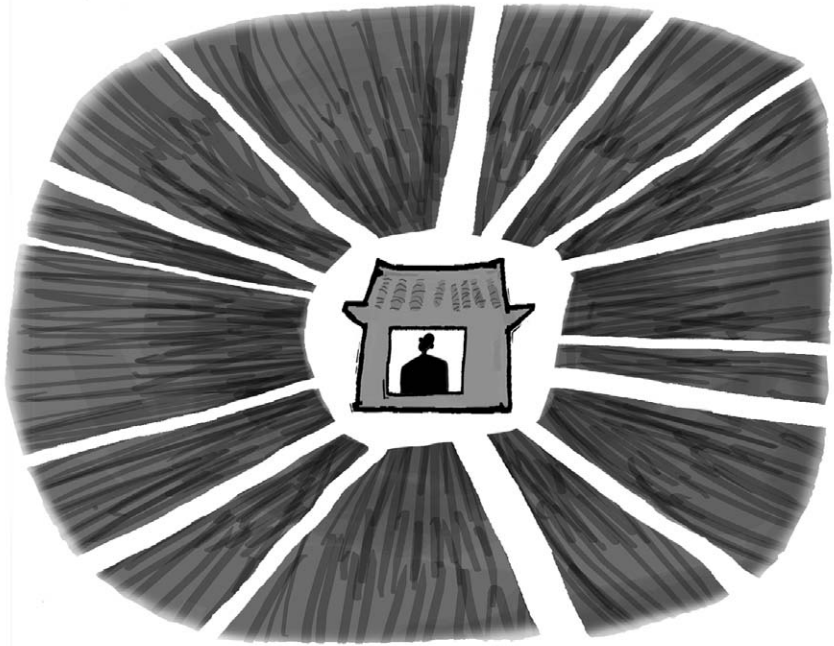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첫째, 강당이 아직 안 돼서 모두 길에 서있는 것이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앉을 자리나마 풍족해서 걱정 없이 만들어드려야 할 텐데 제 덕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봄을 맞이한 듯 날씨는 벌써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여가를 쉼 쉼과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물론 똑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온 분들도 있으니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 왔어도 새로 오는 분들보다 외려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근기·중근기·하근기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오늘은 상근기에서 좀 얘기하고 또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도록 하죠. 간단간단히 우리 비유를 해봅시다.

상근기에서 본다면 만약에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게 있다면 그것은 윤회법이고 인과법이고 과보를 받는 법이요 또 윤회하는 법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생사는 먼지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그런 윤회법이요 인과법이고 과보를 받는 법이요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먼지 못한다.' 잘 생각해서 넘어가 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뜬말을 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를 이루려면, 즉 '자유인이 되려면' 하는 소립니다. 주인공의 성품을 발견해야만 약에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그것은 의도를 범하는 격이 되죠. '유의 법' 만의 떡 하나를 집어먹고 그걸 갈아서 모두 이렇게 해매고 있는 거와 같죠. 그러나 그 정신세계 무(無)의 떡과 유(有)의 떡을 한데 합쳐서 집어삼키면 아주 깨끗하고 정정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만사가 오케이죠. 그것 차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유의 법 50%의 떡 하나를 그냥 먹고 지내는 거와, 무의 법 50%의 떡과 유의 법 50%의 떡 둘을 한데 합쳐서 하나로 삼킨다면, 딱치는 대로 삼킨다면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릅니다.

부처란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 기능 한 견해 한 소견에 집착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자아 부처의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런 상근기야 애굽니다. 절대 스스로 허용치 않습니다. 부처란 이 지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범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성품은 항상 공해서 더럽다 또는 깨끗한 법이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묶는 다 증득한다 이런 것도 없으며 원인과 결과도 없습니다. 부처는, 자아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그 반면에 범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선을 닦지도 않으며 악을 짓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작위(作爲) 없는 자유인이라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한다면 스스로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 이것이 죄가 안 될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에, 이 말에, 이 뜻에 모든 걸 한번 기울여 보신다면 한 환나에 넘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쁘고 좋은 건 다 아시죠?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도 강도질 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합니다. 풀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변연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하고부터,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여가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부처인 줄로 아는 것도, 또는 부처가 아닌 줄 아는 것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벌어 놓고 어찌게 벌어놓은 게 오늘에 딱치고 이러는 것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것 당신이 해결 해라.' 이거지, 누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여주고 대신 해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갚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잘못 저질렀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품을 발견해서 제대로 곁을 걷게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한테 되돌아와야 소립니다.

자기가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됐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일들을 하고 모두 행하고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탄 놈이 해주

거 없죠, 각자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주인공한테 되돌아오는 거고 되돌아오는 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입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거는 한계가 없고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거 현실에도 자기가 저지른 거,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잘못하면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거니까 몰락 당신한테다 보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 전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다 되돌아 입력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되돌아 되돌아 입력이 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으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현실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자꾸 놓고 관하는데도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이런 아주 하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잘하면 못하면 못났든 잘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의 뿌리요, 주인공이지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서 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딱치는 거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주인공이 모두 하는 거, 바로 주인공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주인공에다 되돌아 이 소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을 주인공한테다 되돌아 이겁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성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다가 관하고 그랬는데 주인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되는냐?"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 만약에 부상으로 차를 타고 갔으면 타고 올 수도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 이 끝없이 이어져 진리의 길이 되는 거지, 끊어진다던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잘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선정을 만들어놓고, 아가 얘기처럼 잘못하게

되면 잘못하지 않게 가져 없이 쳐서 거기가 되 놓고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너무도 잘못하고 잘하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게 하고 또 잘 안되는 거는 '아,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돌려서 '너만이 잘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다면 '이거는 안되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는구나!' 해서 안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리고 타는 거 가운데 있는 거지, 내리고 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그 가운데에 그 자유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주인공 가운데서 바로 내 성품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공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되돌아 이겁니다. 무슨 못 믿고 믿고 없어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타고 났으면 주인공이자, 바로 주인공이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발전시키려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를 주인공에다가 모두 되돌아, 잘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잘 못하는 건 잘하게 끝까지 보라 하는 것이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수익권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는 물에서 살다가 겨우 물 바깥으로 나와서 무척 오래 시련을 겪고 인간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되는가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을 받아서 모든 게 골고루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이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생기고 위와 바위가 뒤집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에 관한 것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점차적

20면으로 계속

수행, 날개를 달다

이 몸을 선천에 맡긴지 50여 주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밟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축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있는데 천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뱃속을 파고드는 이 통환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탄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정계에 나가 속진을 잊어 내면서 눈,귀,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전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략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신국판 381P
가격 10,000원
2권 19,000원

각양 성현(覺元)스님
- 1928년 출생 - 1968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 1969년 부산 법어사 동산대종사 문하에 입문
- 1991년 부산 법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68년 까지 30년 간 중무어 중사
- 1968년 - 2006년 재방선생 또는 난야 등지에서 약 20년 간 수선안거 성만
- 2007년 현재 남해 화랑사에서 간거 중
*본(수행, 날개를 달다)는 여기 화랑사에서 인거 중에 엮은 것이다.

■ 구입처 02)2004-8237 서울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

天機秘傳 2008년 戊子年 무자년 핵심택일지

365일 매일 한장씩 한눈에 훑어 볼 수 있는 상담자가 왜왔는지 한눈에 꿰뚫어 볼수 있는 특수래정비법 공개 ...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핵심 인연래정비법에 대하여
당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운을 짚어보는 법

- 매일운세吉凶판단법
- 당일 일상행사길흉표
- 자신의 재수대통 방향지리
- 결혼 약혼 택일법
- 장례행사 이장의 길흉표
- 日辰法 보는 조건법
- 建除十二神 정국도와 해설
- 임신한 아기 男女건강법
- 상담자吉凶 來占法
- 당일 불공, 고사, 기복법
- 이사방위 길흉표
- 건축,상량,개업일 판단법
- 月日辰 해당 身裁조건표
- 二十八宿 정국도와 해설
- 황홀도 길흉표와 해설
- 생기복덕 길흉표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국8절판 / 백초스님 편저 / 20,000원

사주명리 한방치방학 4x6배판(徐鼎煥)을(양정본) 1권980쪽, I 권890쪽/II 권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만, 전효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정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춧돌 사교 추식을 사교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연 편저 / 신국판 / 양정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운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정승하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본 / 817쪽 / 값 50,000원